

주일 예배 2026년 10월 18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참 아름다워라 / 찬송가 478(신) 78(구)

*성시 교육 / 성시 교육문 78 번(요한복음 14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찬송가 272(신) 330(구)

기도 / 박승화 집사

성경 봉독 /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3-16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 박화신 목사

찬송 /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 찬송가 524(신) 31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지 죄의 형벌을 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어디쯤
와
계신가요

히브리서 6:1-6

1. 운전할 때 목적지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고 은혜를 경험한 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신앙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만족한 채 성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성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품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3. 영적 성숙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기꺼이 섬기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이 성숙을 향한 길입니다.

4. 물론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이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 장 3 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숙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맞본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체험을 넘어 성품으로,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명샘소식

1.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의·기쁨·평안의 모습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런 나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 10월 24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자 모임을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갖습니다.
4. 다음 주일, 10월 25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 박래석 집사님, 한규철 집사님, 강영호 집사님의 건강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6. 김종원(윤하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중순 즈음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0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장미혜(4)	조창(11)
	박승화(18)	한광기(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13-16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부르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4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1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2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3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소망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15-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서겠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붙들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단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16